



‘참왕이신 그리스도!’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싸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가를 것이다.”(마태 25,31,32)

오늘은 모두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누리의 왕(임금) 이심을 기념하는 큰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12월 3일)은 전례력으로 새로운 한 해(나 해)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 제1주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요 온 누리의 왕이신 참왕(참임금)’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참왕의 모습이 세상이 생각하는 왕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오늘 두 독서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내고 흠어진 양은 도로 데려오며, 부러진 양은 싸매 주고 아픈 것은 원기를 북돋아 주겠다. 그러나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 나는 이렇게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겠다.”(에제 34,16)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죽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왔으므로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것입니다.”(1코린 15,20-21)

참왕이신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 섬김의 왕, 희생과 사랑의 왕, 비움과 죽음의 왕, 공정과 정의의 왕’이십니다. 한마디로 세상이 추구하는 왕의 모습과는 아주 다른 ‘바보의 왕’이십니다.

우리 안에 화두(話頭)로 던져져 있는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는 서로가 바보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이고, 이 노력이 선행될 때, ‘함께 가기’라는 ‘시노달리타스의 참의미’가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마태 25,31-46)인 ‘최후의 심판기사’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처럼, 참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종말의 때에 심판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믿는 모든 이들이 참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랐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땅에 많은 사목자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처럼 사목했는지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참왕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하면서, 예수님처럼 나와 너 그리고 모두의 구원을 위해 땀 흘리는 하느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 25,46) 아멘.



이병우 루카 신부 | 합천본당 주임

주일 진례

- 제 1 독 서 에제 34,11-12,15-17
- 화 답 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 제 2 독 서 1코린 15,20-26,28
- 복 음 마태 25,31-46

교구 추계 사제총회



교구 추계 사제총회가 11월 14일 마산가톨릭교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총회는 최태준 필립보 신부(교구 사목국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각 국별로 2024년 사업 계획에 관한 보고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구장 서리 신은근 바오로 신부의 인사와 당부의 말을 전하며 총회를 마무리하였다.



제39회 성서 주간(11월 26일~12월 2일) 담화(요약문)

“생명의 선물로써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로마 5,5; 8,20 참조)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 성서 주간을 맞이하여 ‘하느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물기’(골로 3,16 참조)를 기도하며 인사드립니다.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제10차 ‘가톨릭 성서 연합’(Catholic Biblical Federation) 총회가 있었습니다. 6년마다 열리는 정기 모임으로 2021년에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인류 공동체를 멈추어 세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총회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2015년에 반포하신 회칙 「찬미받으소서」(Laudato Si’) 2항에 인용하신 말씀인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로마 8,22)에서 영감을 받아 “취약한 세상을 위한 생명의 선물인 말씀을 선포하며”를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취약함’을 직접 겪고 나서야 비로소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살아 있고 힘이 있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뜻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 그 사명을 완수하시는 하느님 말씀이야말로 우리 생명의 원천이요 성령의 선물입니다’(이사 55,11; 요한 4장; 1코린 14,1; 히브 4,12-13 참조). 따라서 하느님 말씀을 담고 있는 성경은 사람을 거룩한 생명과 이어 주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과 인류 공동체의 보편적이고 뿌리 깊은 취약함으로 “다 함께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있지만, 몸소 ‘탄식’하시며 우리 대신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습니까(로마 8,26 참조). 오히려 우리는 그 ‘탄식’ 안에서 희망을 간직하는 은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의 선물로써 희망을 간직하게 하시는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우리 모두 날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도록 노력합시다. 그리하여 하느님 말씀이 우리 삶의 참된 이유가 되고, 풍성한 희망이 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선물이 되어 교회 활동 전체를 이끄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주님의 말씀’, 73항 참조).

2023년 11월 26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성서위원회 위원장 **신호철 비오** 주교



2025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모집

2025학년도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에 지원하기를 희망하는 교구 사제 성소자를 모집합니다.

- 접수: 12월 1일(금)까지
- 대상: 세례받은 지 만 3년이 경과하고 견진성사를 받은 자로서
 - 1)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
 -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1) 지원 신청서, 부모 동의서, 본당 주임 신부 추천서
 - 2) 교적 사본, 세례 증명서, 견진 증명서, 부모의 혼인성사 증명서
 - 3)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부모(가장) 명의 제적등본, 부모(가장) 혼인관계증명서
 - 4)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또는 검정고시 교과성적 환산표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의 경우-고등학교 생활기록부와 대학 성적증명서
- 지원자 면접: 12월 3일(주일) 15:00, 교구청 3층 성소국장실
- 문의: 교구 성소국 055·249·7061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느님 나라

그리스도의 성혈 흡수 수녀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양 떼입니다. 오늘 독서에서 주님께서는 “내 양 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몸소 내 양 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고 하시니 우리는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공정으로 양 떼를 먹이시는 하느님께서, “기름지고 힘센 양은 없애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기에, 행여 우리 자신이 하느님께서 없애버리시려는 그 무리에 들지 않는지 살피고 조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름지고 힘센 양은 운택한 삶과 세력을 누리는 이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유함과 세력을 지니고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가 단지 그들이 부유하고 세력이 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힘센 양이 다른 양들을 제치고 좋은 풀과 음식에 먼저 다가가서, 약하고 상처 입은 양들이 그저 곁에서 부럽게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힘센 양은 자신의 배를 불리고 더욱 기름지고 힘이 세어지게 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부익부 빈익빈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기름지고 힘센 양은 다른 양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살아가기에 공정하신 하느님 눈 밖에 나게 됩니다.

부유함과 세력이라는 단어 앞에 우리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를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와 관련 없지 않습니다.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넉넉한 삶, 그리고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인정과 존경이 보장된 지위를 우리 모두는 선망합니다. 이런 삶을 바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도 우리가 필요한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받고 다른 이들로부터 무시와 업신여김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타인들의 곤궁함과 고통을 모른 척하고 배려하지 않는 무관심, 다른 이들과 나누지 않고 움켜쥐기만 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에 강한 경고를 내리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다시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으실 때에, 준비된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과 영원한 별을 받는 곳으로 갈 사람들을 갈라놓으시는 기준은 매우 명백합니다. 즉,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작은 이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 삶을 살아온 이들을 하느님께서 당신의 왕국에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온정을 베풀며,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을 해 온 이들은 영원한 행복을 보장하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이 다른 이들에게 줄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나눔이 필요한 상황이 와도 나눌 수 없습니다.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가난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시간, 건강, 힘, 재능…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어떤 무언가를 받아지니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이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다른 이와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을 남들과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굶주린 이에게 얼마나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었는지, 헐벗은 이에게 얼마나 값비싼 옷을 주었는지를 하느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향한 따스한 마음, 관심과 배려에서 우러나온 나눔을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옥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들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 본받아 사랑을 키우는 삼천포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본당주보인 예수성심의 마중을 받는 신자들의 마음이 편안한 미소로 변진다. 넓고 안락한 잔디밭을 밟는 걸음이 사뿐거린다. 성전으로 오르는 계단을 밟으며 신자들은 자세를 가다듬는다. 서정범 요한 주임 신부의 당부를 새긴다. 성전을 성전답게 만드는 것은, 공간의 규모나 꾸밈이 아니라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사목 지침에 따라

성전은 하느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 곳이다. 또 구원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곳이다.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드리는 곳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살아 있는 성전을 위해 온 신자들이 유념하기를 사제는 바라고 있다. 미사에 역점을 두는 서정범 신부는 미사전례가 간결하고 흐트러지지 않기를 바란다. 해설자도 복사도 없지만, 주례 사제와 반주하는 수도자와 호응하는 신자들이 혼연일체를 이루며 일사불란하게 진행된다. 레지오가 있는 수요일 미사에는 참례자가 많아, 큰 성전이 그득하다.

강헌 요셉 사목회장은 미사에 집중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신자들도 젖어들어 있다고 말한다. 30여 년 전에 이 성당으로 전입하여 사목위원으로 줄곧 활동했다는 그는 2021년 가을 수녀원과 사제관을 태웠던 화재 때의 기억을 떠올린다. 그 당시 화재 뉴스가 나가자 본당과 교구를 초월하여 전국 각처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다. 가톨릭 조직의 힘에 무척이나 감동했고, 순조롭게 복구되고 매듭이 지어져 두고두고 감사할 뿐이었다.

정용학 프란치스코 사무장은 이곳에서 세례를 받았고, 40년 가깝게 사무장직을 맡아 오니 남달리 본당에 대한 애착이 크단다. 성당을 드나드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족처럼 느껴진다. 현재 주일미사에 2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아직 코로나 전으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삼천포 자체에도 인구가 줄고 있는 실정이라 본당에도 영향이 따르는 편이다.

세심한 배려에 따라

삼천포성당은 6월 예수 성심 대축일 전후의 주일날을 정하여 본당의 날을 지낸다. 올해는 감사미사를 올리고 모처럼 전신자가 식사를 했다. 모두 함께 대접받게 하려는 주임 신부의 배려로 여성 신자들이 음식을 만들지 않고, 외부에서 주문한 음식을 편히 나누며 행복한 웃음으로 정을 쌓았다.



코로나로 흐지부지했던 주일학교는 새 악기도 구입하며 조금씩 새 바람을 일으켜 20명 정도로 회복한 것이 다행이다. 지난달에는 3년 만에 교구장 서리 신은근 신부의 집전으로 견진성사를 거행하여 한층 분위기가 활기를 얻었다.

미사 후에 레지오 주회가 열리는 회의실은 정갈한 복도를 따라 잘 배치되어 있다. 주회가 끝나면 저마다 배당되어 있는 구역을 청소하며 정성을 다하여 성당을 가꾼다.

게시판에는 눈에 띄는 게시글이 있다. '장례규정'과 초상이 났을 때 '연도 당번'이 배정된 표이다. 신자들이 장례에 대한 규정을 잘 몰라 주뻗거리는 것을 보면서, 사제는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날들과 장례미사가 아닌 다른 가능한 추모의 형태를 알도록 안내해 두었다. 연령회에서는 언제 초상이 나더라도 첫째, 둘째 날로 나누어 시간별로 배정된 레지오 Pr.에서 연도를 바치도록 한 것이다.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심한 배려이다.

세심한 배려는 또 있다. 쾌유를 위한 '기도해주세요' 란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문양을 예쁘게 만들어 개별의 이름을 표기하여 정성을 담았다. 아픔을 겪는 가족이나 기도를 바치는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의 기운을 더하게 한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

1954년 3월 진주성당(현 옥봉동성당)의 김두호 신부가 선구동 선창가 단칸 판잣집에서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했다. 이것이 씨앗이 되어 1955년 6월부터 최학림 안드레아 집으로 옮겨 공소예절을 시작하면서 삼천포공소를 설립했다. 1956년 6월에는 선구동에 방치되어 있던 옛 읍사무소 건물과 대지를 매입해 개조하여 사용하였다.

1957년 6월 본당으로 승격한 삼천포성당은 초기에는 프란치스코 소속 신부들이 사목을 담당하였고, 정착에 있어 적잖은 과도기를 거쳤다. 1966년 부산교구에서 분리하여 마산교구가 설정된 후 제4대 박재근 아우구스티노 신부가 부임하면서 점차 안정에 놓이게 되었다.

1997년 9월에는 구 성당이 있던 선구동의 시간을 뒤로하고, 좌룡동에서 새 성전 축성식을 올리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신자들은 당시 성전 건축을 위해 임시 비닐하우스 성전에서 미사전례를 했던 일이나 기금 마련을 위해 명태포 작업을 했던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리며 참 힘들었지만 은총의 시기였다고 한다.

2007년에는 『삼천포본당50년사』를 발간했다. 50년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록하여 후대의 자료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이 해에는 신심단체별로 의미 있는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특강을 통해 신심을 북돋우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당시 총무부장을 맡았다는 강현 요셉은 역대 주임 사제를 초빙하여 특강을 듣기도 하고 사진전을 열어 지난 시간을 회고하는 50주년이라는 특별한 한 해가 되었다고 한다.

올해 66년이 되었다. 70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본당 신자들은 특별히 기도하고 있다. 이 성당에는 귀한 신학생 학부 4학년 신상목 미카엘이 있다. 본당의 역사는 오래되었지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신학교에 입학하고도 지속된 경우가 없어 삼천포성당 출신 사제가 아직 없다. 신자들은 간절히 이 공동체의 첫 사제가 탄생하기를 소망하고 있다.



교구장 서리 동정

가음동본당 임시 성전 미사 봉헌

일시: 12월 3일(주일) 10:30
장소: 가음동본당 임시 성전

신앙대학 졸업미사

일시: 12월 3일(주일) 14: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교구/본당

그라츠 자매교구 위원회 위령미사

일시: 11월 28일(화) 11:30/ 장소: 교구청 2층 성당

제9차 본당양업22 실습 교육

일시: 11월 30일(목) 10:00/ 장소: 교구청

신앙대학

일시: 12월 2일(토)~3일(주일) 1박 2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예비신학생·여학생 예비성소 모임

일시: 12월 3일(주일) 13:30/ 장소: 교구청

2025학년도 신학교 지원자 면접

일시: 12월 3일(주일) 15:00/ 장소: 교구청

12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12월 3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통영, 거제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한 신 분
신청: 12월 23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교육)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전례와 꽃예술학교 졸업 및 수료작품 전시회

일시: 12월 8일(금) 오프닝 11:00~10일(주일)까지
장소: 교구청 1층

문의: 전례와 꽃예술학교 010-9088-4864

푸른군대 성모신심 미사

일정: 매일 1주(토)/ 장소: 문의바랍니다.
문의: 푸른군대 회장 010-7471-9258

포콜라레Focolare 생활말씀 월 모임

마산: 1주(수) 19:30 회원동성당
창원: 1주(월) 19:30 사파동성당
진해: 1주(월) 10:00 해군성당
비대면: 1주(월) 20:00 화상연결
문의: 윤지령(요세파나) 010-4490-6996

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수어미사 안내

일시: 12월 3일(주일) 15:00/ 장소: 남성동성당
문의: 농아선교회 010-9207-8856

기타

동계피정 안내

장소: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
대상: 교리교사, 자모회, 복사단, 초등학교 6학년 졸업생
문의: 055-255-8295, 010-7661-3832
▶피정 일정은 조율 후 수시 진행되오니 문의 바랍니다.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 국내입양상담
02-764-4741~3
www.holyfcac.or.kr

청주교구 성령회관 성전복구 1박 2일(미사, 피정, 무료)

일시: 12월 1일(금)~2일(토) 금 18:00 식사(무료)로 시작
하여 토 17:00 마침/ 장소: 청주교구 성령회관
강사: 김완식 요셉, 엄정화 루도비카, 이상기 가브리엘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찬양팀)
미사: 청주교구장 김종강 시몬 주교
문의: 043-213-9103, 회장 010-4400-1344

한국외방선교(해외선교)수녀회 성탄전례 청년 피정

일시: 12월 23일(토)~25일(월) 2박 3일
장소: 한국외방선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가톨릭 세례를 받은 40세 이하 미혼 자매
문의: 010-9353-1773 김토마스 수녀

중앙동본당 오로간 반주자 모집

접수: 11월 30일(목)까지 중앙동성당 사무실
제출서류: 이력서(자세한 내용은 문의 바랍니다.)
문의: 055-547-7183, 010-9330-3433

**오염된 바다,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우려하는
월요시국기도회**

일시: 11월 27일(월) 19:00
장소: 사파동성당
문의: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055-249-7168

※ 신부님들께서는 장백의와 <녹색영대>를 준비해 주십시오.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주일) 16:00~2024년 1월 1일(월)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송년미사, 해맞이, 신년 대축일 미사)
접수: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 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준비물: 세면도구(수건 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신청 및 문의: 055-221-1891

변종원 요셉 신부 부친 선종

변종원 신부(광주가톨릭대학교 교수)의 부친 변헌지(도미니코)님께서 11월 15일(수) 선종하여 11월 17일(금) 하대동성당에서 장례미사가 거행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유가족 일동 -

옥포본당 제21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류열수(다니엘)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신동범(가브리엘)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김미옥(프란치스카)
기획총무: 이현석(안드레아)
재경분과위원장: 이화수(미카엘)
전례분과위원장: 김옥란(비비안나)
복음화분과위원장: 임행선(프란치스카)
교육분과위원장: 손복희(루피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유정완(디오니시오)
구역분과위원장: 김명숙(레지나)
청소년분과위원장: 이영진(파비아노)
시설분과위원장: 김진수(레오나르도)
미디어분과위원장: 김상훈(가롤로)

옥봉동본당 제3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정두현(요셉)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창수(토마스 아퀴나스)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송경인(요안나)
총무: 강태한(미카엘)
기획재정분과위원장: 손정술(요셉)
복음화분과위원장: 하진순(로사리아)
전례분과위원장: 권무선(크리스티나)
구역분과위원장: 문우분(베로니카)
복지분과위원장: 신홍자(마리아)
시설분과위원장: 이우철(니콜라오)
청소년분과위원장: 김경숙(프란치스카)

칠암동본당 제29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박희수(바르나바)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이상우(골롬바노)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배경미(루치아)
총무: 조규용(요셉) 부총무: 서경희(요안나)
재정분과위원장: 서혜자(아네스)
교육분과위원장: 조정인(루치아)
선교분과위원장: 이항미(아네스)
전례분과위원장: 조현숙(클라라)
구역분과위원장: 황은경(이사벨라)
청소년분과위원장: 문태호(마태오)
사회복지분과위원장: 김경희(엘리사벳)
가정사목분과위원장: 백귀연(히야친타)
시설분과위원장: 도창일(자백 요셉)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 구	11월 27일(월) 19:00	중앙동성당	미사에 대한 해설	박상운 토마스 신부(전주교구 효자성당 주임)		010-5247-9900
진주지구	11월 27일(월) 19:30	신안동성당	함께 가기(시노달리타스)	이병우 루카 신부(합천본당 주임)		010-3846-1980
청 년	매주 (수) 19:30	가톨릭 문화원(구 교구청) 4층	성령기도회	19:30 미사 봉헌/ 20:00 기도회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2월 3일(주일) 10:00	서울 분부(동소문로)	korvocation@columban.or.kr	대상: (만)19세~35세



지금 여기 사진관
김찬우(사도요한) 010-8949-7901
위치: 창원 용지호수앞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마산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도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영로 489(팔용동)
구자롱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친환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스킨 100ml, 힐데 마스크팩 50ml, 힐데 샴푸 400ml, 힐데 크림 50ml
롯데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24년 1월 10일 이탈리아 일주 12일-570만원
24년 5월 13일 스페인 산티아고 10일-395만원(11월 30일까지 신청)
bra (주)보나투어 02)732-4578 www.bonatour.co.kr

트라피스트 수녀원
100% 유기농 잼
딸기잼, 무화과잼, 귤잼, 포도잼 40g
본당이나 시설, 단체 등의 바자회용, 선물용 환영합니다.
·수녀원 직영 쇼핑몰
https://smartstore.naver.com/trappistshop
문의 및 전화주문 : 010-2652-0706



무방비로 걸어 계신 하느님

박수영 베아트릭체 시인/ 가톨릭문인회

제가 가진 보물 중엔 저의 딸과 아들이 유치원 시절에 했던 말들을 기록한 수첩이 있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기가 했던 말이 얼마나 재밌고 특별했는지 표지에 칭찬스티커가 여기저기 붙은 수첩인데요. 이제는 사춘기를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매번 거절당할 때면 ‘놀자고 붙잡을 때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반성도 되고 아이들만큼 저도 더 어렸던 시절로 되돌아가 볼 수 있는 타임머신 같은 수첩입니다. 그렇게 몇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저의 딸이 유치원을 다닐 때쯤 저에게 들려준 하느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하느님의 오줌이야.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하느님께서 아이들에게 뛰어놀 아라 내리는 상이야.”

아이들이 서로 싸우다가도 똥오줌 얘기만 나오면 한 몸인 듯 깔깔깔 으흐흐 웃을 때 당시에는 어이가 없어서 같이 웃기도 하고 순수함과 무례함 사이의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읽어보니 제 신앙이 얼마나 굶주렸으면 그 농담에도 채워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 손잡고 화단을 지나갈 때면 아이들에게는 하느님은 날씨에도 계시고 화단의 꽃에도, 돌멩이에도 계신다고 말해주었으면서 정작 저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이젠 그만 양보해도 되잖아?’ ‘베풀지 말고 돈을 더 모아봐.’ ‘너만을 위한 시간을 좀 더 챙겨.’라고 부추기는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가는 제 곁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느님과 함께라는 것을 잊고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신앙’의 의미부터 검색해 보았습니다.

신앙: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하느님을 믿고 가르침을 항상 기억하고 지키며 순종하는 모범적인 신앙인이고 싶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기심과 그럴싸하게 계으를 이유를 만들어주는 무력감에게 시의 적절한 성경 구절을 찾아내어 읽어주며 하느님의 방법으로 대처하는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생각났습니다.

권능이 있으심에도 무방비의 공감으로 제가 어리석은 결정을 해도 제가 살아 있는 한 스스로 알아채고 용서를 청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을 마음으로만 받지 말고 표현하기.

창밖에는 나무들이 손에 잔뜩 쥐고 있던 잎사귀와 열매를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연신 사진을 찍어 주며 환절기가 아이들의 유년 시절만큼 짧고 귀하다는 걸 실감하고 있습니다. 고해성사하기에 참 좋은 날입니다.

제32회 반석청소년축제 개최



제32회 반석청소년축제가 11월 12일 교구청에서 진행되었다. 교구 내 35개 본당 중고등부 주일학교 학생들과 교사 및 관계자 550여 명(마산지구 초대본당 9개 128명, 순례본당 26개 417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반석제는 진전면에 위치한 신청사에서 진행된 첫 번째 행사여서 감회가 새로웠다. 부스 체험을 통해 획득한 점수만큼 각 본당 주일학교 학생 회로 지원되는 구성으로,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뜨거웠다. 파견미사는 주용민 리노 신부(교구 사무처장)의 주례로 15명의 교구 사제가 함께 봉헌하였다. 주용민 신부는 미사 강론을 통해 ‘사랑을 지향하는 아름다운 희생’을 강조하며 열정적인 신앙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축제를 준비한 모든 이들, 마산지구 초대본당과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전하였다.



구원을 위한 주님의 새로운 길: 다윗의 등장(사무엘 16-17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이제 우리는 사무엘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순례를 시작합니다. 사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첫 임금 사울이 하느님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무척 슬퍼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길을 떠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임금이 될 사람으로 지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라마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대략 16~17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사울이 이를 알면 사무엘을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처럼 암송하지 한 마리를 끌고 가라고 명하십니다. 사무엘은 이 제사에 이사와 그의 아들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기름을 붓는 예식은 비밀리에 이루어져야 했기에 예식은 그들만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은 이사의 여덟 아들 중의 막내였고, 아직 어린 나이여서 제사에 초대받지 못한 채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가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려니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걸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시며 그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은 이사의 일곱 아들들을 모두 보았지만 그 가운데는 주님께서 뽑으신 이가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사는 막내아들을 불러왔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고, 당시에 그는 볼이 붉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가 당신이 뽑으신 이라고 말씀하시자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들이닥쳐 줄곧 그에게 머무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주님의 영이 들이닥친 이후에 주님의 영은 사울을 떠났고, 사울은 악령에 시달렸습니다. 신하들은 임금에게 음악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하였고, 음악치료사로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베들레헴 사람 이사의 아들로 비파를 잘 탈 뿐만 아니라 힘센 장사이자 전사이며 말도 잘하고 풍채도 좋으며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사울을 시중들게 되었고, 사울은 그를 사랑하여 자기 무기병으로 삼았습니다.



당시에 필리스티아 군대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에페스담뎨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에 맞서서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 전쟁은 각 군대의 대표 장수들의 싸움으로 승패가 판결이 날 것입니다. 필리스티아 진영에서는 갓 출신의 투사인 골리앗이 나섰습니다. 그는 키가 거의 3미터에 이르고, 앞가슴을 가리는 갑옷 무게만 60킬로그램이 될 정도로 거구인 사람입니다. 그는 청동 투구와 비늘 갑옷을 갖춰 입고 청동 정강이 가리개를 차고, 무게가 약 7킬로미터 나가는 청동 창을 메고 있었습니다. 방패병을 앞세우고 나선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누구든 나와서 맞서 싸우자고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군사들 가운데 그와 맞서겠다고 나서는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가 싸움을 걸어온 지 사십 일이 되었을 때 이사는 전쟁터에 나간 세 아들에게 양식을 전해주고, 그들의 안부도 확인할 겸 막내아들인 다윗을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을 들었고, 또 골리앗을 죽이는 자는 사울 임금이 부마로 삼고자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하느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에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은 개울가에서 주운 돌맹이 다섯 개와 무릿매 끈을 들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주님께서 칼이나 창 따위로 구원하시지 않는다. … 전쟁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사무 17:47)고 말하며, 무릿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려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베어 옵니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군은 다윗의 용맹함에 힘입어 필리스티아인들을 갖과 에크론에 이르기까지 물리쳤습니다.